

42호

Issue & Review  
on Democracy

# 지금, 여기에서의 민주인권기념관의 쓸모

: 민주화운동 이후 세대에게 민주인권기념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박 범 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 지금, 여기에서의 민주인권기념관의 쓸모

: 민주화운동 이후 세대에게 민주인권기념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박범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 01

## 민주화운동 이후 세대에게 민주인권기념관은 어떤 쓸모를 지닐 수 있는가?

오랜 시간동안 시민사회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민주인권기념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건립을 주장했다. 2001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민주인권기념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고, 2018년에 이르러서야 남영동 대공분실 자리에 건립되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 오랜 시간의 요구가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민주인권기념관을 어떻게 지을지에 대해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인권기념관이 어떠한 것을 기념해야 하며,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다. 독재정권에 대해 수많은 이들이 항거하고 투쟁하여 성취한 것이다. 이러한 항거와 투쟁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도록 민주인권기념관은 필요하다. 더욱이 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를 몸으로 겪어 온 세대들에게 그 시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은 필요하다. 그것은 그들의 과거 행적을 의미화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주화운동 이후 세대에게 민주인권기념관은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이 글은 민주화운동 이후 세대가 민주인권기념관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이자 주장이다. 이 글에서 나는 민주화운동 이후 세대, 즉 민주주의가 이미 실현된 이후에 태어난 이들에게 민주인권기념관과 민주주의를 기념한다는 것이 어떤 쓸모를 지닐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 세대의 사건 기억을 시대 초월의 문화적 기억으로 바꿔가려면 회고적 기념이 아니라, 전망을 제시하는 미래적 기념이 돼야”<sup>1</sup> 한다. 그렇다면 미래적 기념을 위해 과거를 기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끊임없이 되물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인권기념관은 단순히 민주화운동을 겪은 이들에게만 효용을 가진 공간으로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2019년 10월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30대다. 6월 항쟁이 있던 87년 다음 해에 태어났으며, 내가 태어나고 사회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형식적으로나마) 민주화가 성취된 이후였다. 따라서 나에게 있어 민주화운동은 먼 과거의 일로 느껴질 뿐이다. 내게 있어 민주화운동은 배워서

1 최호근,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에 거는 기대」, 《한겨레》, 2019.06.10.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97303.html#csidxdb6f66e27dc1eba8ae191fa31186570>

---

알게 된 것이지, 내 몸으로 겪어낸 사건이 아니다. 그 지점에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논의들에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자신이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잡혀 고문을 당한 이들과 민주화운동을 배워서 알고 있을 뿐인 이들과 민주화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같을 리 없다. 이후부터 나는 이러한 거리감을 의식하면서, 민주인권기념관이 민주화운동 이후 세대를 포함하여 보다 많은 이들에게 의미로서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 02

사건‘들’에 대한 상징으로서  
대공분실

민주인권기념관은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이 있던 곳에 건립될 예정이다. 민주화운동을 몸으로 겪은 세대들에게 남영동 대공분실은 그 자체로 치가 떨리는 공간일 것이다. ‘국제해양연구소’라는 위장 상호로 76년부터 운영되었던 남영동 대공분실은 1985년 9월,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의장 김근태가 고문 기술자 이근안에게 고문을 당한 공간이며,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발생한 공간이다. 김근태와 박종철을 포함하여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당한 이들의 숫자는 384명에 달한다.<sup>2</sup>

인권유린과 국가폭력의 공간으로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 저항하는 공간으로서 남영동 대공분실은 의미를 지닌다. 더욱이 남영동 대공분실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건물이 국가폭력에 복무한 공간”<sup>3</sup>으로,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한 각종 악행이 자행되었던 공간이라는 점에서 장소성이 주는 의미가 강하다. 1976년 김수근에 의해서 지어진 남영동 대공분실은 고문에 최적화 된 건물로서, 많은 이들이 그 공간에서 고통받았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이제 더는 고문실이 아니지만, 고문실이었던 과거의 모습은 상징으로서 아직 남아 있다.

과거의 사건 현장을 보존하고자 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회고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가 아닐 것이다. 과거의 사건은 오늘 이 순간에 다시 기억되면서, 현재 그리고 미래에 새로운 쓸모를 창출하기 위한 상징으로써 활용되어야 한다. 인권유린과 폭압의 역사에 대한 상징인 동시에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의 상징인 남영동 대공분실은 현재와 미래의 쓸모를 지닌 상징으로써 활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인권유린과 폭압의 역사에 대한 상징인 동시에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서의 대공분실이 유의미한 상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할까?

남영동 대공분실이라는 공간이 상징으로써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 공간의 의미에 대해 끊임없이 되물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층적으로 드러내는 일이 필요하다. 즉, 김근태, 박종철과 같은 특정한 인물을 부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행해진 다양한 일들을 다층적인 면모로 드러내면서 그 공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이

2) 384명이라는 숫자는 2018년 11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진실의 힘이 함께 연구한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실태 조사연구>에서 밝힌 것이다.

3) 민주인권기념관 조성과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왔던 발언이다. 전문가 토론회는 3차에 걸쳐 진행됐으며, 이 발언은 2019년 3월 27일에 있었던 1차 토론회에서 경기문화재단 이사장 김학민이 발언한 내용이다.

---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금과 이후의 순간에 더 나은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이렇듯, 현재의 순간에 의미를 재구축하기 위해 과거의 사건 현장이 활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과거의 장소는 현재의 순간에 새로운 의미로써 활용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공간의 일부가 변경되는 것도 필요에 의해 가능하다. 원형은 단지 현재의 순간에 의미를 재구축하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고정된 원형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남영동 대공분실이 유의미한 상징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원형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때의 원형은 현재의 순간에서의 의미의 재구축을 위해 능동적으로 변형될 여지도 있는 것이다. 사실, 원형은 특정한 한순간을 전제로 한 것일 수밖에 없다. 공간은 시간 속에서 사람, 사건 등 다양한 행위의 연쇄 속에서 변해간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원형은 어떤 순간의 원형이다. 그런 점에서 어떠한 고정적인 원형을 상정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85년에 김근태가, 87년에 박종철이 고문을 당한 공간은 다르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문을 당했던 다른 이들이 고문을 당한 공간 역시 각자의 때와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건을 전제로 원형을 불러오는 것이지, 불변하는 상으로서의 원형이란 존재할 수 없다.

특정한 시간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에 한정하여 원형을 정해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그 외의 시간에서 벌어진 다른 사건의 가치가 평가절하되어 버릴 수도 있다. 박종철을 기념할 때의 원형과 김근태를 기념할 때의 원형은 다른 원형일 수밖에 없으며, 이 둘을 제외한 다른 이들을 기념할 때의 원형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동기(이동기 2019, 299-300)는 “기억의 공간으로 남은 역사 현장은 기본적으로 ‘원형’(original condition)이 아니”며, “기념박물관의 기능과 목적에 맞게 장소와 공간과 건물은 다시 구성되고 재현되고 창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기념박물관에서의 원형은 기념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염두에 두면서 현재 시점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특정한 원형을 찾고, 원형을 보존하자는 주장보다 민주인권기념관이 어떤 상징으로 기능해야 하는지 묻는 일이 보다 더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과거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으로만 그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순간에 불러와 현재 시점에서 재의미화되는 일이 더욱 더 중요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기념박물관에서의 원형은 특정한 순간의 어떤 모습을 고정시키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것보다는 현재의 순간에서 유의미한 상징으로 재구축되어야 한다.

남영동 대공분실이라는 강력한 상징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인권기념관은 특정한 원형으로서의 대공분실의 모습 혹은 특정한 원형으로서의 사건을 찾기 애쓰려고 하기보다, 그 안에서 벌어진 다양한 사건들을 다층적으로 드러내는 방향으로 기념 대상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384명의 피해자들, 혹은 아직 드러내지 못한 그보다 많은 수의 피해자들, 그리고 그들을 고문했던 이들, 이 사이에서 벌어진 수많은 사건에 대해 다양하게 발굴하고 그것을 기념해야 할 것이다. 이미 지나간 사건들을 다양한 양태로 복원하고 불러와서 남영동 대공분실이 지닌 인권유린과 폭압의 역사를 다층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

민주화운동 이후 세대에게 민주화운동은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겪은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이 겪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민주화운동 이후 세대에게 민주화운동은 체험하거나 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의 순간들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를 돕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과거의 사건들이 다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민주화운동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민주화운동에 대해 폭넓은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더욱이, 민주인권기념관은 특정한 누군가에 대한 기념관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민주인권기념관은 박종철 기념관이나 김근태 기념관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과정들을 기념하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민주인권기념관은 활용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특정한 누군가나 특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한 원형을 찾으려 애쓸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 안에서 행해졌던 수많은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민주인권기념관의 내용을 채우는 데 있어 오히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그 공간 안에서 일어난 다층적인 사건들을 드러내고, 그것들을 다층적으로 체험, 전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이런 고려야말로, 민주화운동 이후 세대에게 과거의 민주화운동이 보다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일 것이기 때문이다.

## 03

과거의 상징과 대비되는  
새로운 상징 만들기

남영동 대공분실이라는 장소성은 민주인권기념관을 인권유린, 폭압의 역사에 대한 상징이 되게 했다. 향후 민주인권기념관은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이라는 역사적 의미에서의 강력한 상징을 한편에서 드러내면서, 이와 대비되는 의미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상징하는 새로운 상징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남영동의 장소성에만 매몰되지 않고, 민주와 인권에 대한 새로운 상징으로서 장소성의 의미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민주인권기념관이 만들어 내야 하는 새로운 상징은 무엇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상징은 국가폭력과 인권유린, 그리고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라는 기존의 대공분실이 가진 상징과 대비된다. 이 대비 아래에서 남영동 대공분실의 장소성은 현재의 의미에서 더욱 확장될 수 있다.

민주인권기념관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대한 상징으로 거듭나기 위해 민주인권기념관은 무엇보다 소수자에 대한 고려를 우선하여야 한다. 소수자에 대한 존중은 민주주의/인권의 가치에 대한 상징의 하나로서 유의미하다.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수많은 개인을 최대한도로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소수자에 대한 존중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본 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

민주인권기념관은 많은 사람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무엇보다, 지체장애인을 비롯해 장애가 있는 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턱을 없애고, 누구나 손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외에도 이주민, 외국인 등 다양한 주체들의 손쉬운 접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소수자의 방문을 환영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드러내는 한 방식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고려는 단순히 개념적인 측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나의 지향으로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방문객들이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섬세한 고려들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지체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등 장애의 다양한 층위들을 고려하면서 기념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 누구도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이처럼 다양한 소수자를 고려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민주인권기념관은 소수자에 대한 고려를 최대한도로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민주인권기념관은 민주주의/인권의 가치를 드러내는 곳으로써, 그 공간 자체가 민주주의/인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이 공간 자체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만 한다.

더욱이 이러한 고려들은 소수자가 아닌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실, 소수자에 대한 고려는 다수자에게도 이로울 경우가 많다. 가령, 지하철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지체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위해 요구되고,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지체장애인에게만 국한하지 않는다. 노약자를 비롯해 많은 이들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민주인권기념관이 장애인을 비롯해 소수자를 위해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해놓고, 이 장치들이 소수자가 아닌 이들에게까지 이로움을 준다면, 그것을 경험하는 보통의 사람들이 소수자를 위한 사회적 배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방향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험을 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일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몸으로 익히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민주인권기념관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는 가치가 곧 민주인권기념관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의 표출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민주인권기념관은 소수자에 대한 고려를 최우선으로 삼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상징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민주인권기념관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최대한도로 구현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고용에 대한 사안일 것이다. 민주인권기념관은 한국사회의 불평등의 심화에 기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인권기념관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유의미한 상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노동자를 착취하거나 불평등을 심화하는 구조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민주인권기념관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점에서 민주인권기념관의 운영에 있어 노동자에 대한 존중은 필수적일 것이다. 그것은 공정한 체제를 만들려는 작은 노력이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상징으로서 기능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고, 그들의 가치를 최대한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선 거기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일하는 이들이 과도한 노동시간에 허덕이지 않고, 자신의 삶 안에서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그것이 대외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민주인권기념관을 방문하는 이들도 그 사실에 대해 알게 되고, 하나의 유의미한 사례로서 대외적으로 드러내면서 민주인권기념관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지켜지는 공간이라는 상징으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최대한도로 지켜지는 공간으로 민주인권기념관을 위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민주인권기념관은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이라는 과거의 상징과 대비되는 새로운 상징을 가질 수 있다. 이 새로운 상징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장으로서, 민주주의와 인권 안에 담겨 있는 합의, 즉, 보다 나은 세계/사회 만들기를 실현하는 장이라는 새로운 상징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방문객들은 민주인권기념관을 방문하여 그 안에서 실현하고 있는 가치를 몸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인권에 대한 교육보다 직접 몸으로 느끼는 학습으로서 유의미한 역할을 할 것이다.

## 04

##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몸으로 경험하기

이미 많은 사람이 민주인권기념관이 민주시민 교육의 장으로서 미래 세대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민주인권기념관의 역할에 있어서 교육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며, 민주인권기념관이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시민들과 미래 세대들이 일상적으로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역할”<sup>4</sup>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화운동 이후 세대에게 과거의 민주화운동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자신들의 삶의 문제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민주화운동 이후 세대에게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지점이 여기이다. 과거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일이 지금 이 자리에서의 필요성 때문이라면, 민주인권기념관은 민주화운동 이후 세대에게 민주주의의 참된 의미를 교육시키는 역할을 해야만 할 것이다.

다만,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르치는 데 있어 그 방식에 대한 다양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이 점에서 민주인권기념관에서의 교육은 일방향적인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자발적인 학습의 장이 되어야만 한다. 무엇보다, 학습이라는 말은 배우고 익힌다는 그 말뜻에서 알 수 있듯이, 몸에 익힌다는 의미가 더 강한 말이다. 민주인권기념관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학습하는 능동적인 학습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민주화운동 이후 세대가 스스로 민주주의, 민주화운동, 인권의 가치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고 그것을 자신의 몸으로 익힐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몸으로 경험하게 하여, 그것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렇게 하여 민주화운동 이후 세대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리를 한국사회 전반에 퍼트리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민주인권기념관을 찾은 이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가치를 배우고,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것이야말로, 민주인권기념관의 구체적인 쓸모가 될 것이다.

또한, 스스로 자신의 필요에서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장으로서 민주인권기념관이 활용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의 장으로서 민주인권기념관이 활용되기 위해서 민주인권기념관은 민주주의와 인권과 같은 가치들에 대한 자발적인 학습이 가능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 점에서 김육훈은 민주화운동 이후 세대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4) 채혜선, 「문 대통령 “민주주의 커지려면 불평등 해소해야”」, 《중앙일보》, 2019.06.10.

<https://news.joins.com/article/23492689>

---

가치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생·청소년 동아리나 청년 단체들에 공간을 제공하고 그들의 활동을 폭넓게 후원하는 방식”(김육훈 2019, 12)을 제안한다. 민주인권기념관이 민주화운동 이후 세대에게 자발적인 학습의 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다양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민주화운동 이후 세대가 스스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몸에 익힐 수 있도록, 민주인권기념관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공론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토론하여 민주주의를 발전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 이 공론장 안에서는 다양한 논의들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담론들이 널리 퍼질 수 있는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민주화운동 이후 세대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장으로 기능하면 좋을 것이다.

이 공론장이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민주화운동 이후 세대들이며, 보다 많은 이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낮은 문턱 안에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보통의 사람들의 문제로서 문제화하고, 다양한 이들이 공론장 안에 참여하면서 민주인권기념관은 유의미한 쓸모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 05

## 미래에 머리를 두려면

민주인권기념관이 민주화운동을 경험한 세대들뿐 아니라, 보다 많은 이들, 특히 이후의 세대들에게 전승되는 공간으로서 의미하기 위해서 민주인권기념관은 과거에 머리를 두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인권기념관은 민주화운동 이후 세대들에게 어떤 효용을 줄 수 있는지 고려하면서 실질적인 필요에 기반하여 조성되어야 한다. 민주인권기념관은 기억과 기념의 정치성에 대해 고려하면서 이러한 정치가 정파적인 논쟁을 넘어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의식해야 한다. 이때의 기여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는 민주인권기념관이 미래 세대에게 줄 수 있는 효용에 관한 내용이다. 이러한 실질적인 효용에 대한 고려는 민주인권기념관의 확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 민주인권기념관이 민주화운동을 겪은 세대들의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더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제를 생산하는 공간이 되는 것은 피해자를 비롯해 민주화운동을 겪은 이들에게도 유익한 일이다. 민주화운동이 만들어 낸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민주화운동을 겪은 세대 이후에도 지속해서 전승되고 기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 참고문헌

이동기, 2019,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구상: 10개의 테제」, 『기억과 전망』 40호.

김육훈, 2019, 「민주인권기념관이 민주주의 교육의 새날을 열기를」, 《Issue & Review on Democracy 41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 연구소

채혜선, 「문 대통령 “민주주의 커지려면 불평등 해소해야”」, 《중앙일보》, 2019.06.10.

최호근,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에 거는 기대」, 《한겨레》, 2019.06.10.

# 지금, 여기에서의 민주인권기념관의 쓸모

: 민주화운동 이후 세대에게 민주인권기념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발행일** 2019년 10월 1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이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로서 연구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